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9 상반기 제16호

발행_ 한국관상지원단
Tel_ 02-421-1968

편집_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우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796, 지층 1호
홈페이지_ www.centeringprayer.or.kr E-mail_ koreacontout@dreamwiz.com

연민의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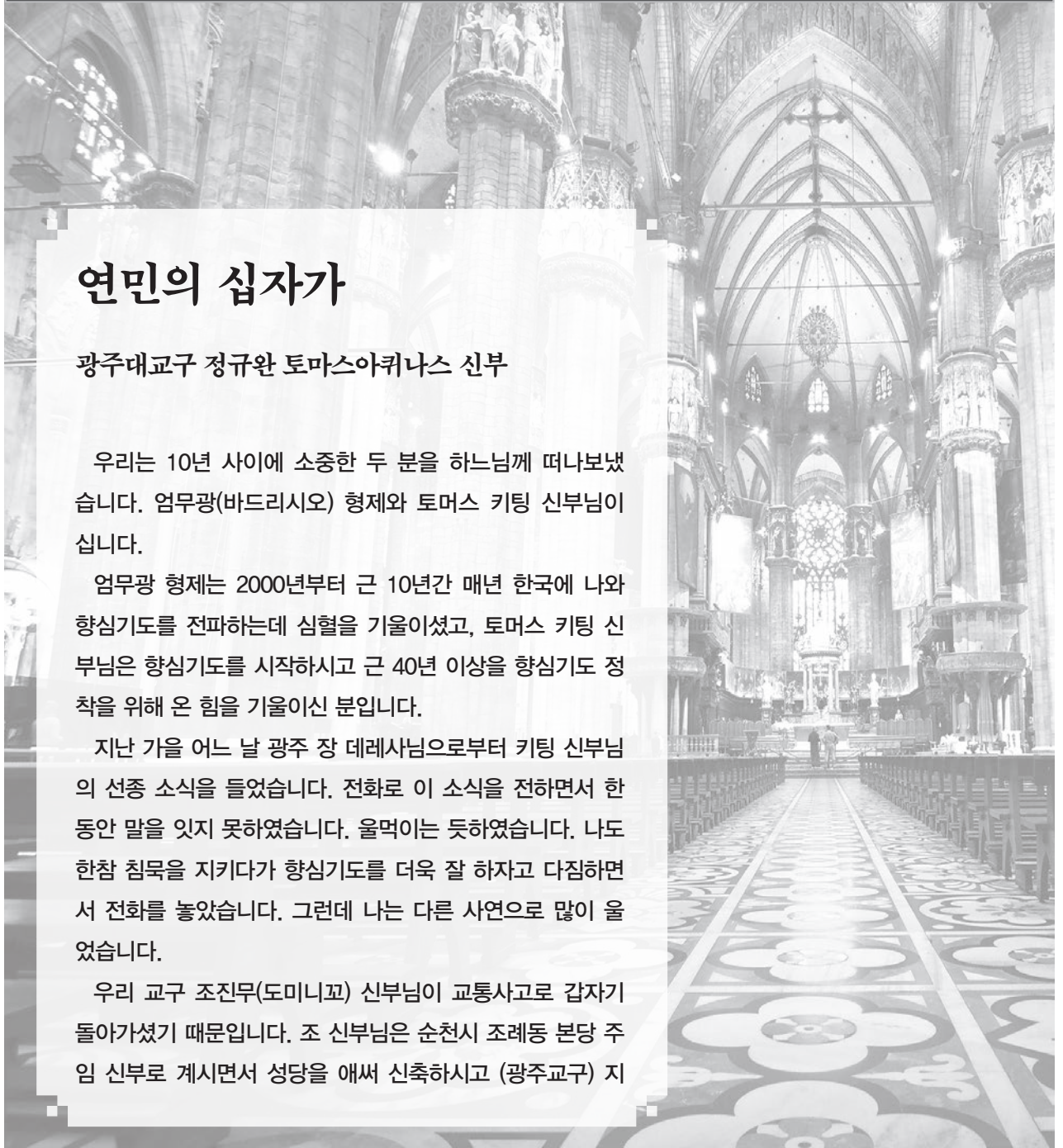
광주대교구 정규완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우리는 10년 사이에 소중한 두 분을 하느님께 떠나보냈습니다. 엄무광(바드리시오) 형제와 토머스 키팅 신부님이십니다.

엄무광 형제는 2000년부터 근 10년간 매년 한국에 나와 향심기도를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고, 토머스 키팅 신부님은 향심기도를 시작하시고 근 40년 이상을 향심기도 정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지난 가을 어느 날 광주 장 데레사님으로부터 키팅 신부님의 선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울먹이는 듯하였습니다. 나도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향심기도를 더욱 잘 하자고 다짐하면서 전화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연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구 조진무(도미니코) 신부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조 신부님은 순천시 조례동 본당 주임 신부로 계시면서 성당을 애써 신축하시고 (광주교구) 지



리산 피아골 피정집 책임 신부로 부임하시고 활동하시던 중 미사와 강의 출장 중 자가용 교통사고로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조례동 성당 소속 지역의 아파트에 적을 두고 있었기에 필요할 때마다 미사를 도와 드렸고 성당 신축 때는 자주 협력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미사를 부탁하는 전화 목소리가 생생하여 울음을 자극했던 듯합니다. 장례 미사와 장지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신부님의 동창 신부들도 계속 울먹이며 예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제들이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려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별나게 이번 조 신부님의 장례때 눈물을 그렇게 쏟게 하였는지를 새겨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연민의 정에 너무 메말라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모든 성당의 정면에서 제대와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민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여인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인처럼 십자가의 예수님 모습에서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하고 메말라 버린 매정한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민의 다른 이름을 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사전례에서 주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예전에는 ‘궁홀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

고도 했습니다. 모두가 연민의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련히 여기심 없이는 한시도 견뎌낼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한마디로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와 자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여기서 향심기도 가족들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으로 거룩한 단어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침묵 기도에서도 하느님의 불쌍히 여김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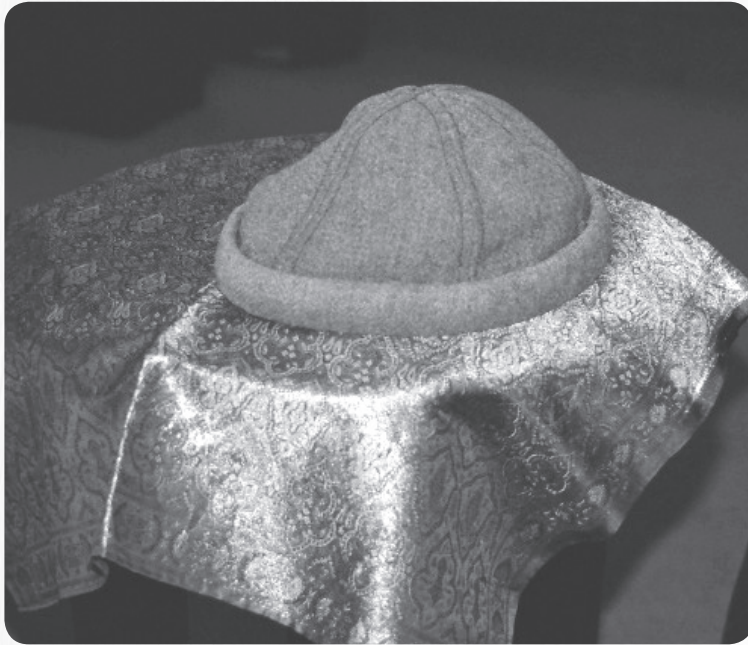
주님의 자비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면서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를 찾다보면 주님께서는 윗자리 좋은 자리를 배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향심기도 때마다 하느님 앞에 거짓자아로 상처를 입고 온갖 욕망과 집착으로 주체할 수 없이 무거워진 자신을 최대한 굽히고 낮추면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갈 때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당신 현존의 산봉우리로 올려 주신다는 믿음으로 침묵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토머스 키팅 신부님은 하느님의 단순성을 산봉우리에 비유하신 귀한 말씀을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침묵 속에 하느님께 맡기면 그때마다 당신 현존의 산봉우리로 우리를 맞이하실 터이니 온갖 거짓자아가 떠나간 하느님 현존의 산봉우리에서 참자아의 안식 가운데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토머스 키팅을 보내며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번역



토머스 키팅 신부 (1923. 3.7—2018. 10.25)

전 세계 관상지원단 여러분께,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이신 토머스 키팅의 서거 소식을 깊은 슬픔으로 전합니다. 토머스 신부는 메사추세츠 주, 스펜서의 요셉 수도원에서 2018년 10월 25일 오후 10시 7분에, 당신의 몸을 마지막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과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풍요로움과 겸손함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르친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삼위일체의 심연과 정상에서 자신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베네딕도 수도회는 관상지원단과 함께 11월 16일 금요일 11시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추모행사를 열 것입니다. ‘활동과 관상 센터’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멀리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모행사를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할 것입니다.

11월 16-17일의 추모행사와 동시에 24시간 전 세계 규모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도록 초대합니다.

토머스 신부는 1923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에 끌렸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생활을 예일대학에서 시작하여 포담 대학에서 속성과 정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때, 그가 일하던 캠프의 영적 지도자가 상담자들을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밸리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도원Our Lady of the Valley Trappist Monastery에 데려갔고, 거기서 그는 결국 1944년에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는 1949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1958년에 임명직 장상으로서 콜로라도 주 스노우매스로 가서 새로운 베네딕도 수도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1961년에 성 요셉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수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1971년에 키팅 신부는 로마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때는 교황 바오로 6세가 사제, 주교, 신학자들에게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을 부활시키도록 권고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답하여, 토머스 신부는 윌리엄 메닝거와 바실 페닝턴과 함께, 렉시오 디비나라는 전통 수련과, 관상 기도 혹은 하느님 안에 쉽으로 발전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운동을 바탕으로, 향심기도 수련을 계발하였습니다. 원래 의도는, 수도원의 관상 수련을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에게까지 가르쳐서, 더 넓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도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토머스 신부는 20년의 수도원장직을 마치고 스노우매스 베네딕도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1984년에 관상지원단을 공동 설립함으로써,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대중화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또 다른 결실은 가톨릭이 타종교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일을 수락하고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만물의 중심God is Love: The Heart of All Creation>에서 토머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가지 종교도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를 전부 담아낼 수 없다.” 토머스 신부의 지속적인 유산 중 하나는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종교간 대화를 30년 이상 개최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노우매스 회의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 모든 종교의 영적 유산을 이해하고, 분열과 폭력으로 이끄는 문화적 태도를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토머스 신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영적 여정의 심리적 체험과 그리스도교 관상 전통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5280 매거진 리포터인 마리 클레어 피셔에게, 수도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외부세계와의 단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

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 발견한 보물을 나누어주고 싶은 커다란 욕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 시리즈를 만든 그의 작업이 이 열망을 증언합니다.

생애 마지막 10년을 남겨두고, 토머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무’이겠지요. 그러나 무는 존재하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남아있는 시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완전하게, 모든 차원에서, 모든 면까지 차지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토머스 신부는, 오랜 친구이며 성 베네딕도 수도원의 피정 사목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팻 존슨 Pat Johnson과의 최근 대화에서, 여러 해 동안 관상지원단에서 수고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팻은 말합니다. “여기 생의 마지막에, 고통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우주로 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보기를 보여 달라면. 이 순간 여기에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위대함, 겸손의 위대함,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남아있지 않은 겸손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깨달음... 은총과 능력으로 삶을 헤쳐 나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그는 얼마나 놀라운 모범인지요!”

이제 토머스 신부는, 사랑과 변화에 대한 당신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복음의 관상적 차원과 향심기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수난과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이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사도 1,7-9)

토머스 신부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삼위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활짝 열어드립니다. 기도와 봉사 안에서 일치의 깊이를 더욱 심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중단 없이 동의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입은 은사를 체화하고 전달하려 할 때, 하느님의 영감과 숨결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합니다.

깊은 감사와 비통한 마음을 담아 관상지원단 스태프와 사무국

라뻬 라미 샤피로 *Rami Shapiro*로부터

나의 친구이자, 스승, 멘토인 토머스 키팅 신부님이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습니다. 몇 달 전 나는 신부님을 만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분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무릎에서 가슴께로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토머스는 올라가고, 나는 토머스가 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다시 두 손을 펴서 무릎 위로 내려 놓으셨지요. “내가 죽으면 토머스가 더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분께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어디로도 갈 필요가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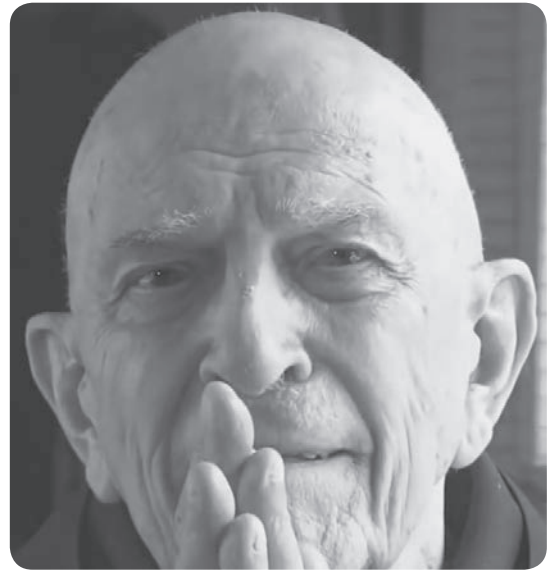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사랑에 굴복한 삶

토머스 키팅 신부와 칼 아리코 신부의 대담/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번역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 하시리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필리 1,3-4,6]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
다. 자주 그분을 실망시켜드렸지만 거듭거듭 용
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 없는 사람
입니다만, 단 한 가지 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오로의 말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려, 때로는 가장 약한 것과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 아리코 신부) 토머스 신부님, 남은 여생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라고 여겨
지십니까?**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미 집에 온 게 아닐까요.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생애
가 하느님의 집에 사는 것이지요. 여기서 집이란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희
망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권능에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
니다. 희망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선행, 혹은 자기 삶의 어느 시점에 행한 공로에 달
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교 혹은 일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이며, 불가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을 신뢰한

다면, 아무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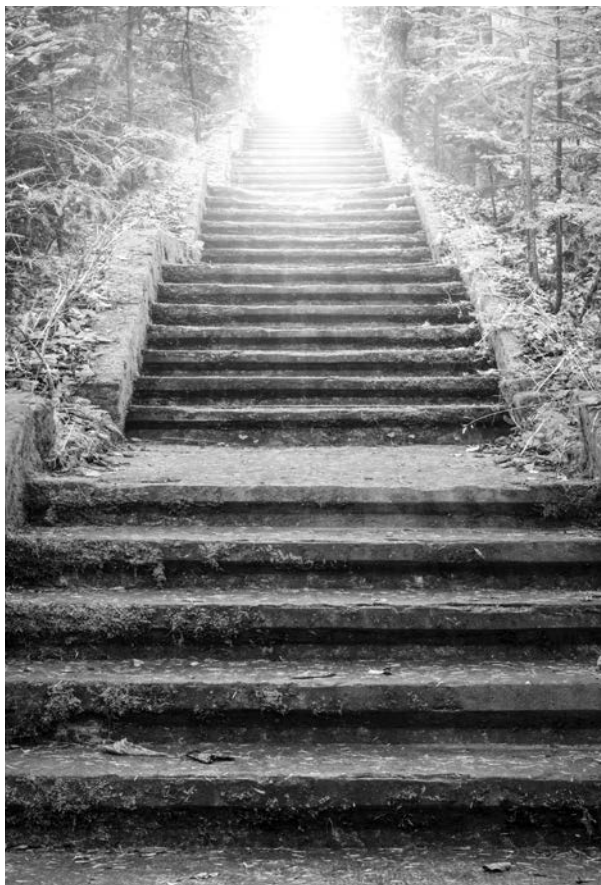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라는 바흐의 성가가 있지요? 죽음은 달콤합니다.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의 완전한 침잠이나 자기 상실로 가는 마지막 장벽 혹은 하느님 안에서의 죽음으로 이해할 때 달콤합니다. 이 광활한 공간 속 충만한 생명, 그것이 선한 모든 것의 집입니다.

하루하루 살아 나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매우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누구 말이지요?”하고 답합니다.

(칼 아리코) 신부님의 영적인 면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요?

내게 그런 영적인 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때로 가장 형편없는 도구 안에서조차 활동하십니다.

나는 늘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마지막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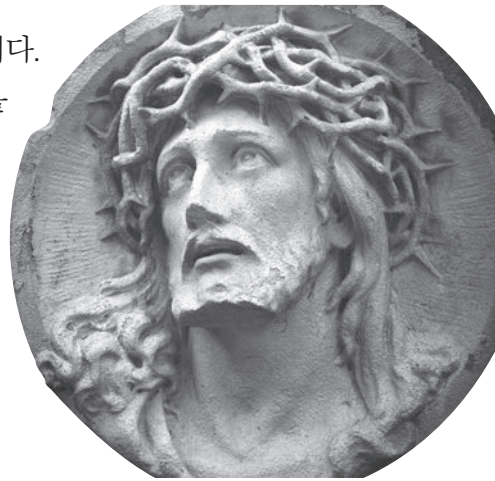
더 오래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제가 좋아하는 불교 개념이 있는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음’이 점점 더 관상 생활의 핵심 수련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수단은 내적 습관 혹은 태도입니다. ‘애쓰지 않음’을 길들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비움’이라 합니다. ‘초연함’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매력을 느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무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무(Nothingness)는 사실상 무한한 가능성이신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부활에 이르는 디딤돌입니다.

자기 ‘소멸’ 혹은 ‘내려 놓기’—‘소멸’annihilating은 오늘날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요.



(칼 아리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나의 다음 전집의 제목으로 써도 되겠네요.

(칼 아리코) ‘소멸’ 말씀이신가요?

예, 어떻게 소멸에 이르고, 그것을 사랑하는지.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히고, 당신을 원하지도 않고, 당신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패배, 실패, 굴욕, 거부-이 모든 것이 보물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승복시키는 변화 과정의 디딤돌로 삼으시고자 하느님께서 큰 사랑으로 이것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명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 하느님 현존 안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이제 하느님의 뜻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무’이겠지요. 그러나 무는 존재하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지향에 마음을 둡니다. 하루하루가 하느님께서 내 인생을 더 완전하게, 모든 차원에서, 모든 면까지 차지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특별하며, 세상은 경이롭습니다. 그것이 악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때는 때때로 당신의 피조물이 영망진창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향심기도는 사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침묵하면서, 그분 현존에 대한 전적인 승복을 이끌어내는 모든 노력을 포함합니다.

동의가 더 완전해질수록, 더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사랑에 대한 승복'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기도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적게 행하고, 하느님께서 점점 더 많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끌리면,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75세를 넘어서면요. / (칼 아리코) 예, 맞습니다. / 무얼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골프를 칠 수도 없겠지요. 우리 인생이 긴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초연해지기 위해서지요.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서 점점 더 차지하시도록 동의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당신의 신적 본성을 나누어가지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지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의하느냐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가 죽을 때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좀 더 일찍 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이 훨씬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속량이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느님의 선성이 우리 전 존재를 차지하도록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심기도는 성장 중인 것 같습니다. 급성장이라고 해야겠지요. 내가 죽고 나면 훨씬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향심기도 운동의 핵심 역할은, 원래의 체험을 워크샵, 서적, 테이프, 특히 피정을 통해서(피정을 계속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쇄신해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든, 나의 짧은 지구 방문을 여기서 마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지혜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나누어주고, 다른 전통과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칼 아리코) 토머스 신부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수천의 사람을 한 데 모이게 한 이 멋진 체험을 경축할 것입니다.

축복이란 사실 선언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신 선언을 선언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가족 전체가 변화되는 움직임, 이것은 하느님의 영적 진화 계획과 협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나는 미래에 대한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장애물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그것이 하느님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신적 자비의 연민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필리 1,7]

나의 선언 혹은 축복삼아, 특히 향심기도 안에서 변화과정에 착수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몇 해 뒤 향심기도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혜들이 더해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지혜들이 우리 전통에서 배운 것을 헌신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은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필리 1,9-1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현존을 누립시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받도록 우리를 맡기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류 가족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합장)

토머스 신부가 메사추세츠 스펜서의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캔 윌버가 보낸 편지

미국관상지원단 소식지 36권 1호, 2018년 12월,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번역

사랑하는 토머스 신부님,

신부님의 병환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신부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실 것 같아 저와 많은 이들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영적 탐구자인 우리 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 깊은 여정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신부님께서 제 삶에서 줄곧, 사실상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 거의 매일 특별한 현존으로 저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트레아가 저를 처음으로 스노우매스 수도원에 데려간 그때가 눈에 선합니다. 선반들 위에 놓여 있는 '에덴을 넘어' Up from Eden를 보고는, "이 분이 나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제 작품에 보내주시는 신부님의 찬사는 제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님께서 하신 일들, 곧 스노우매스의 종교간 대화 및 전 세계 관상 공동체와 향심기도 운동에 이르기까지 신부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늘 저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진정한 그리스도교 성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할 때마다, 저의 첫마디는 언제나 "당연히 토머스 키팅 신부이지요. 살아 계신 성인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부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저를 몹시 괴롭게 합니다. 물

론 신부님 앞에 놓인 즐거운 여정이 저에게 기쁨이긴 하지만, 저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상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신부님께서 떠나가시면 지상의 빛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며, 우리 모두 이를 매우 슬프게 그리고 깊이 느낄 것입니다. <에덴을 넘어>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저와 원천을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진화를 표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분이 바로 신부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여태 만났던 사람들(사실 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신부님이 이 사실을 받아 들기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저는 제법 똑똑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다가올 이 모험에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부님께서 여기 계심에,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시려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저명한 스승'이라는 자아를 놓아버리고 '신적 현존' 안에 더 충만히 쉬시려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바로 그 현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셨으며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아는 행운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삶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다 살아낸 사람을 저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전 인류가 하느님의 진정한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축복을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을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영원한 당신의 캔 윌버

캔 윌버는 종종 '의식 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며, 인간발달의 통합 단계에 대한 탁월한 학자라고도 한다. 캔은 현재 콜로라도 덴버에 살면서, 여전히 철학자, 작가,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교도소라는 광야에서 탈출

미국관상지원단 소식지 36권 1호, 2018년 12월,
폴 디터링, 교도소 관상 기도회,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번역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마태 4,16)

내 이름은 폴 디터링입니다. 나는 토머스 키팅 신부님께 그리고 관상수련의 기쁜 소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 애쓰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15살에 교도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22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줄곧 내 삶을 비극적인 힘의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희망 없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도소는 나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새장이면서 동시에 세상이 내 수치를 보지 못하게 막는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폴섬 교도소의 교정사목자인 레이 레오나르디니가 나에게 향심기도와 키팅 신부의 저서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색다른 기도 방법에 대한 레이의 말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꼭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고도 하지 않고, 특정 종교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요구 사항은, 그저 나의 지향을 하느님께 두라는 것과 마음의 침묵 중에 갖게 된 체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뒤 나는 폴섬 교도소 관상 기도회의 적극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내 삶은 여러 면에서 놀랍게(처음에는 미미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교도소의 위험한 환경에 잘 적응해서 내 안의 취약함이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인한 거짓 자아’를 가졌습니다.(토머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교도소의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는 내 삶이 그야말로 낭비이며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잘 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만한 훈장이나 사소한 업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딛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향심기도 수련을 만났을 무렵 나는 자기혐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침묵 중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인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저항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꿰뚫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으며, 오로지 내가 아는 것은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갈망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이 내가 그토록 오해하고 있었던 하느님께서 보내신 친밀함으로의 초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가슴 설레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내 마음 안에서 끌어당기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조용하다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족시키는 체험으로 인도됩니다. 나의 체험은, 교도소에서 목격한 다른 많은 변화 체험과 기적 체험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쩌서 이런 일들이 풀섬 교도소와 여러 교도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향심기도의 어떤 점이 수감자들에게 그토록 잘 맞는 걸까요?

해답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린 생각 속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게 하는, 권위적인 심판자로서의 하느님 상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상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스럽고 비인간적인 체험들로 인해 증폭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감자들에게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아는 방식으로, 이 체험들은 우리를 승복으로 준비시킵니다. 부정적인 체험들을 내려놓아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간의 확신만 있어도 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영적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가장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보잘 것 없는 나의 경험으로는, 사랑은 승복 이후에 시작됩니다.

토머스 신부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승복이 수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하느님의 특별한 사람들, 곧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창조 목적을 수행할 만큼 강해진,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우리 모두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진리를 믿은 그분의 성실성을 존경합니다. 같은 이유로, 나는 그분의 일을 계속하려는 이들과 손잡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은 참 멋지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다.

오영례 프란체스카 수녀

향심기도에 맞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모든 시간이 나이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듯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느님 안에서는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고 버릴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내 영혼에 정신 건강에 유익이 되는 보물들인 것이었다. 그것을 이제야 조금 아주 조금 깨달은 듯하다. 이런 내가 참 기특하다.

사실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때 이청준 신부님 강의도 듣고 향심기도 수련을 하러 갈 때마다 가서 쉬는 시간이라고 좋아하며 쫓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의를 듣는 시간은 차츰 거짓자아를 다루는 내용에서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하는 맛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향심기도 수련의 시간시간은 괴로웠었다. 처음엔 괴로웠지만 나중엔 하느님께서 내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합리화를 시켜가며 앉아서 자는 시간으로 즐겼다고나 할까? 그래도 공동체에서 귀한 시간을 내 주셨으니 열심히 쫓아다녔다. 졸든, 자든, 인상을 쓰고 앉아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피정을 진행하시는 신부님은 아마도 향심기도 수련에 통달하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봐 주셨던 것 같다. ^o^

지난 9월 향심기도 9박10일 피정은 그동안의 내 기도 수련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연습장이나 훈련소 같았다. 그 시간을 달달하게 지낼 수 있었음이 그동안의 시간들이 낳은 열매 같았다. 어쩌면 그냥 시간이 필요해서 쌓은 봉사 활동 시간처럼 향심기도 수련 스펙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실속 없이 보낸 것 같았는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였고 하느님 입장에서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활동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느님은 참 멋지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다. 내 성향에 맞게 나를 이끌

어 가시며 이렇게 향심기도에 맞들이기까지 맞춤 서비스를 하시며 기다리셨으니 찬미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펴고, 놓고, 내리고, 비우고, 보내고, 또 환영하여 맞이하고 또 놓고, 비우고, 보내고를 반복하다 보니 관상기도가 얹아서 하는 기도라고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마르타의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 무엇이고 마리아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나 정답지 같다...향심기도가...특히 나는 기도에 맞들이며 아무것도 저항하지 말고 오는 것을 수용하고 잘 떠나 보내는 것을 얹아서 하는 생각 뿐 아니라 활동 중에 일어나는 생각, 따라오는 생각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떠나보내고 하다 보니 '지금, 여기서'를 살게 되던 것이었다. 나중에 내가 체험한 것들을 '환영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하느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시지?'라는 생각에 홀로 입을 다물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시설과 아이들 시설에서 소임을 하며 자주 갈증을 느끼고 시대적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그분 안에 머무는 기도, 제대로 그분의 섭리를 따르는 기도, 아기처럼 맡기고 그분 품에 쉬는 기도' 말이다. 이 시대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거리들이 폭풍처럼 세상을 덮치고 있다. 자동화나 돈이면 많은 것들이 그냥 쉬워지는 시대.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기가 없으신 시대.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야 세상의 것들이 지팡이처럼 힘이 되지 않고 하느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은 우선적 급선무인 수도자들 본연의 부르심인 기도를 마음 다하여 실천하는 것이라. 마리아를 통한 마르타로 단순한 현존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가지고 신뢰로 맡겨드리 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한 복음적 증거가 되어지며 바로 지금 히 기록하신 삼위일체께 온전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획하는 공동체의 이름도 이태리어로 라우다또 씨(Laudato si :찬미받으소서)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향심기도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한 몫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상기도에 맞들일 수 있도록 향심기도의 뒷받침이 있었으니까...그래서 나는 더욱 더 하느님께 1+1 그 이상으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며 이 향심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 먹거리로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복사단 향심기도와 그림성경 피정을 마치며

서울 씨튼영성센터 김경순(아네스) 수녀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부터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10여 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1년간의 준비 끝에 이루어진 2박3일의 ‘마음으로 가는 여행(향심 기도)’ 안내(2019년 1월 8일-10일)는 그 어느 향심기도 피정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두근두근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5명의 복사들은 마르코 복음의 ‘그림성서 여행’과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하면서 캠프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조용한 분위기와 침묵 안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피정을 마치고 기록한 향심기도와 성경여행에 대한 소감입니다.

향심기도에 대한 소감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들렸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몸상태가 평온해졌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것 같다.”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 좋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조용해 졌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한,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

좋았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쉴 수 있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주 좋았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집중이 잘 된다” “마음이 평온하고 너그러워졌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졌다.”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마음이 깨끗해졌다.” “마음이 편해지고 Puppy mind가 가라 앉았다. 마음정리가 잘 된다.” “예수님께 마음과 시간을 봉헌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성경여행에 대해 소감: “평소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던 마르코 복음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읽어보아서 좋았다.” “평소 잘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조원들과 연극도 해서 좋았다.” “조원들과 함께 하면서 협동심이 늘었고, 발표력도 늘었으며, 느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조 친구들과 성경 나눔을 하면서 조금 더 친해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으며 많은 성경말씀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성경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



2박3일의 '마음으로 가는 여행(향심기도)'에 참석한 친구들과 함께

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 대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처음 기도피정을 시도하면서 잘 견딜 수 있을지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성경을 읽고 그림성경을 색칠하면서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적고 발표하는 그림성서여행에 잘 따라주었습니다. 또한 향심기도를 하기 전 마음 안의 무거운 짐을 상징하는 조약돌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예뻐합니다. 그들은 그 동안 학교에서나 성당에서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

다. 물론 모든 학생이 침묵을 지키고, 프로그램을 잘 따른 것은 아닙니다. 몇 학생은 향심기도 중 눈을 뜨고 친구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웃어서 침묵의 분위기를 깨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서 눈을 감고 있어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앞으로 세심한 수련과 보완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2/3 이상의 학생들은 진지하게 프로그램을 따라왔고,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정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꿈나무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영적 체험의 기회를 그들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내 인생에 커다란 선물

광주 삼각동 이근미 미카엘라

향심기도를 접한 지 어언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아 보려 합니다.

뭔가 말하자니 내 뒤로 숨으려 합니다. 나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최선의 길인 양 묵묵히 견디어내는 힘이 주어진 것을 느껴봅니다.

저는 지금 손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간조건 강의에서 들은 어렸을 적 인격형성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엄마가 어렸을 적에 미처 나를 돌보지 못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만회해보자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손자들과 같이 놀아주고 뒹굴고 웃고...

나의 하느님과 손주 안에 하느님을 만나는 낭혼신을 다하다 보니 할머니와 손주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듯합니다. 엄마한테 애정 표현하듯이 할미 배에 올라타기도 하고 어린양도 하기도 하는 한 인간을 봅니다.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이 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생존 욕구, 애정 욕구, 힘과 지배의 욕구들이 에너지 센터가 되어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바라볼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애들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고쳐야 한다는 마음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들임을 알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담겨있음을 봅니다. 아이가 낮잠을 잘 때

면 그 시간이 나에게서는 하느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3살과 5살 손주인데 할머니가 가만히 눈감고 앉아 있으면 “할머니 뭐해?” “기도하고 있어?” 하며 달려들기도 합니다. 시련도 따르기도 합니다.

일주일 열심히 아이들과 뒹굴다 내려오면 몸은 여지없이 소리를 냅니다. 힘들다고...

저는 오랜 시간 힘든 노동과 시기 질투 속에서 생활하며 지내던 중 향심기도를 만났습니다.

처음 일 년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줄음 반, 기도 반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생활한 결과 지금에 와서는 정착이 되어 자동적으로 일어나 기도하곤 합니다. 그때의 생활을 되돌아보내 내 안에 있는 생존 욕구 애정 욕구들의 에너지들이 동료들을 괴롭혔음을 알았습니다.

기도 생활한 지 일 년이 지나고 나니 나의 상황은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정리하고, 피정도 다니고, 강의가 있다는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들은 결과 조금씩 체협해 가며, 장부가 인정해 주는 가운데 하루 두 번씩 끊이지 않고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원지 모르지만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지고 장부에게도 바라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도 생기고 아들도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시니 평온함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다가온 향심기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선물입니다.

2019년도 향심기도 피정계획

❖ 소개강의 및 소개피정 · 후속강의 및 심화피정 · 직장인 피정 · 집중피정 ❖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1일 소개강의 (3회)	4월 8일(월) 4월 12일(금) 4월 15일(월)	오후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광주교구 강사	010-3632-0237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
후속강의 (3회)	6월 17일(월) 6월 21일(금) 6월 24일(월)	오후2시 ~ 5시	(광주) 중흥동 성당		010-3632-0237	
1일 소개피정	4월 04일(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	(02)744-9825	
	6월 06일(목) ☆공휴일					
	10월 02일(수)					
5주 후속강의	4월 11일 ~ 5월 09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10분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	(02)744-9825	소개강의 및 소개피정을 끝마친 분들
	10월 09일 ~ 11월 06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 12시10분				
1박 2일 입문피정	2월18일(월) 오전10시 시작 ~ 19일(화) 오후 3시 마침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55) 221-1891~2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
1박 2일 소개피정	9월 07일(토) 오후3시 시작 ~ 08일(일) 오후3시 마침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	(02)744-9825	
1박 2일 소개피정	1월 19 ~ 20일 3월 16 ~ 17일 4월 06 ~ 07일 5월 18 ~ 19일 6월 08 ~ 09일 6월 17 ~ 18일 9월 28 ~ 29일 10월 19 ~ 20일 11월 16 ~ 17일	토요일 오후3시 시작 ~ 일요일 오후3시 마침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	예수 성심 시녀회 조 에우제니아 수녀	010-3422-7587	
대구지부 향심기도 1박 2일 피정	6월 17일(월) ~ 18일(화) ☆향심기도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	이청준 신부	010-7795-0639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 1박2일 피정	7월 13일(토) 오전10시 시작 ~ 14일(일) 오후3시 마침		(마산) 가톨릭 교육관		(055) 221-1891~2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제주지역 2박3일 피정	6월27일(목) ~ 29일(토) ☆중독과 향심기도		(제주도) 서귀포 면형의 집		010-2002-1023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2박 3일 제주교구 청년 향심기도	7월 5일(금) ~ 7일(일)		(제주도)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



2박 3일 소개 및 심화 피정	10월 11일(금) 오후 3시 ~ 13일(일) 오후 3시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상지원단 교수진	(02) 421-1968	소개강의 및 소개 피정을 끝마친 분들, 6주 후속강의를 끝마친 분들,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
향심기도 2박3일 피정	☆파스카 신비와 향심기도 4월 01일(월) 15시 ~ 03일(수) 15시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055) 221-1891~2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향심기도의 열매와 은사 5월 27일(월) 15시 ~ 29일(수) 15시				
	☆하느님 안에서 휴가 8월 8일(목) 15시 ~ 10일(토) 15시				
	☆향심기도의 심리학 11월 29일(금) 15시 ~ 12월 01일(일) 15시				
2박 3일 심화 피정	2월 04일(월) 오후 3시 ~ 06일(수) 오후 3시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	예수 성심 시녀회 조 에우제니아 수녀	010-3422-7587	후속강의를 끝낸 분,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12월 13일(금) 오후 3시 ~ 15일(일) 오후 3시				
초등부 중고등부 2박3일 여름 향심캠프	7월 19일(금) ~ 21일(일)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초,중고생들
	7월 26일(금) ~ 28일(일)				
	8월 02일(금) ~ 04일(일)				
	8월 09일(금) ~ 11일(일)				
	8월 16일(금) ~ 18일(일)				
	8월 23일(금) ~ 25일(일)				
2박 3일 심화 피정	7월 30일(화) 오후 3시 ~ 8월 01일(목) 오후 3시 ☆인간조건과 영적여정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6주후속강의를 끝마친 분들, 향심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3박 4일 집중피정	12월 02일(월) ~ 05일(목) ☆강의 없음				
2박 3일 부활피정	4월 18일(목) ~ 20일(토)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향심기도를 하시는 분들
3박 4일 성탄피정	12월 22일(일) ~ 25일(수)				
성령 강림 9일기도	5월 30일(목) ~ 6월 7일(금)				
성령 강림 전야제	6월 8일(토) 저녁 8시 ~ 10시				
9박 10일 집중피정	9월 24일(화) 오후 4시 ~ 10월 03일(목) 점심식사후 해산	(논산) 씨튼 영성의 집	한국관상지원단 교수진	(02)421-1968	3박 4일 이상 심화피정을 참석하신 분들

❖ 월 침묵피정 및 월 모임 · 새신의 날 · 전국 소기도 모임 ❖

피 정		일 시	장 소	지 도	연 락 처	신청자격	
월 침묵피정		3월 19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서울 성북동) 씨튼 영성 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02)744-9825	
		4월 16일(화)					
		5월 21일(화)					
		6월 18일(화)					
		7월 16일(화)					
		9월 17일(화)					
		10월 15일(화)					
		11월 19일(화)					
		12월 17일(화)					
하루 새 신 의 날	울산	2월 24일(일)	오전10시30분 ~ 오후4시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왕영수 신부	010-5488-1239	항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3월 31일(일)					
		4월 28일(일)					
		5월 26일(일)					
		6월 30일(일)					
		7월 28일(일)					
		8월 25일(일)					
		9월 29일(일)					
		10월 27일(일)					
		11월 24일(일)					
월 새 신 의 날	광주	1월 07일(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광주) 중흥동 성당	전 영 신부	010-3632-0237	
		2월 11일(월)			남재희 신부		
		3월 04일(월)			정규완 신부		
		4월 01일(월)			박석렬 신부		
		5월 13일(월)			왕영수 신부		
		6월 10일(월)			윤행도 신부		
		7월 01일(월)			전 영 신부		
		8월 05일(월)			이청준 신부		



		9월 02일(월)			정규완 신부		
		10월 07일(월)			박석렬 신부		
		11월 04일(월)			친교의 날		
		12월 02일(월)			정규완 신부		
하루 피정	성주	1월 19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성주) 평화 계곡 피정의 집	예수 성심 시녀회 조 에우제니아 수녀	010-3422-7587	향심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2월 16일(토)					
		3월 16일(토)					
		4월 20일(토)					
		5월 18일(토)					
		6월 15일(토)					
		9월 21일(토)					
		10월 19일(토)					
		11월 16일(월)					
월 모임	여수 순천 광양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순천) 조례동 성당	정규완 신부	010-4569-9360		
	대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대전) 월평동 성당	박봉석 형제	010-3909-6649		
	대구	1월 12일(토) : 자체피정	(대구) 만촌3동 성당	미정	010-7795-0639		
		2월 18일(월) 오전10시 ~ 19일(토) 오후3시(위탁피정)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4월 1일(월) ~ 3일(수) : 위탁					
		4월 13일(토) : 자체피정	(대구) 만촌3동 성당	윤행도 신부			
		5월 11일(토) : 자체피정		미정			
		6월17일(월)~ 18일(화) : 자체피정 *향심기도의 열매와 은사	(성주)평화계곡 피정의 집	이청준 신부			
		7월 13일(토) ~ 14일(일) : 위탁	(마산) 가톨릭 교육관				
		8월 08일(목) ~ 10일(토) : 위탁	(마산) 가톨릭 교육관				
		9월 14일(토) : 자체피정	(대구) 만촌3동 성당	미정			
		10월 12일(토) : 자체피정		미정			
		11월 29일(금) ~ 12월1일(일) : 위탁	(마산) 가톨릭 교육관	이청준 신부			

〈소기도모임〉

지역	장소	일시	봉사자	연락처
서울	씨튼영성센터 (사랑의 씨튼 수녀회 / 성북동 분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김문희 엘리사벳	010-8917-4523
	(성공회) 성 세례요한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변요한 신부	010-8886-0046
	새길교회	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최성림 목사	010-3741-0252
		②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③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인천	만수 6동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강경애 세실리아	010-4780-7867
경기	(남양주)마석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동한 프란치스코	010-2801-1974
	☆(부천) 성화의 집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강선희 목사	010-8631-7228
	☆(고양) 살림 교회	①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호 목사	031)912-4930 010-5101-4935
		②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대전	내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박성숙 헬레나	010-5404-7993
	진잠 성당 - 유아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황경해 아네스	010-6630-6649
	궁동 성당 - 유아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황경자 데레사	010-6888-0281
	도룡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박정옥 소화데레사	010-8804-2160
	월평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송진희 미카엘라	010-6489-0600
	목천 성당 - 성체조배실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강기민 로사리아	010-4629-7312
	복수동 성당 - 성체조배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김정희 레지나	010-5472-0141
	☆(월모임) 월평동 성당-교육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박봉석 세례자요한	010-3909-6649
청주	구룡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허윤경 글라라	010-9154-6445
	영운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우형옥 루시아	010-5480-8520
	사직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최소자 카타리나	010-6506-8779
	송절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이현수 아가다	010-9937-3540
	분평동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최옥희 미리암	010-8844-0633
	청산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곽동금 아네스	043)733-2795
	미원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천경민 아가다	070-9408-9670
부산	좌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정예규 아네스	010-3878-9638
	남천동 성당_112호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부곡 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김귀연 세실리아	010-2322-5690
	범일 성당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송석미 스텔라	010-8306-8280
	화명성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황철선 이사벨라	010-7332-0244
	남산 성당	①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정희남 소화데레사	010-3157-2423
		②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윤순옥 모니카	010-9880-5005
	민락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정미례 크리스티나	010-9222-8015



대구	황금동 성당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저녁미사 후	최석환 빈첸시오	010-3526-6611
	만촌3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최해자 세라피나	010-7795-0639
			②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박용희 세실리아	010-3511-8150
	본리 성당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강 글라라	010-7298-0371
	(포항)대해 성당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심옥숙 아녜스	010-6650-9870
경주	성동 성당 - 성당 2층		① 매주일요일 오후3시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010-6477-3223
			② 매주수요일 오후6시	박창두 미카엘	010-5879-7527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1시30분 ~ 3시 ☆향심기도와 렉시오디비나	왕영수 신부 박경희 마리아	010-5489-1239 010-8029-6329
경남	(진주)하대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30분	황혜순 율리안나	010-9667-8944
	(진주)금산 성당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태광훈 스테파노	010-2831-4200
	(창원)사파동 성당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홍진순 루시아	010-9552-7315
	거제	장승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경화 도미니카	010-7559-1283
		옥포 성당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김복순 아녜스	010-9689-0072
		장평 성당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주석환 유스티노	010-3193-1896
	(거창)거창 성당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신효원 로사	010-5444-3098
광주	중흥동 성당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임정자프란치스카	010-9431-7640
			②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송정순 데레사	010-2626-8217
			③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김맹순 모니카	010-5512-6869
			④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조연숙 리디아	010-9138-2615
			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윤금 보리나	010-8230-0215
	원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최옥순 세실리아	010-3999-6331
	금호2동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최복희 데레사	010-6690-1097
	비아 성당		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표금숙 로사리아	010-2683-4103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안은경 발렌티나	010-9885-8814
	두암동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충헌 루치오	011-666-6931
	옥과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강성자 도미니카	010-9883-2309
담양	창평 성당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이옥순 수산나	010-2610-0694
순천	조례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김해현 까리다스	010-4569-9360
여수	선원동 성당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지영 엘리사벳	010-7655-3952
광양	광영동 성당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주미 세레나	010-6635-4342
곡성	곡성 성당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	유효숙 스텔라	010-6680-2073
군산	군산 성당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최혜승 가브리엘라	010-2988-8105
전주	솔내 성당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황인자 엘리사벳	010-4662-1188
제주	광양성당-지하교리실		매월 첫째,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1시 30분~ 3시 30분	김은실 소화데레사	010-2002-1023
	제주교구 내 성당 (매월 정함.)		☆월 피정의 날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30분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 서울지부 ■

서울지부에서는 씨튼영성센터와 서울대교구 사목국 향심기도회에서 지속적으로 소개강의 및 후속강의가 이어지고 월 침묵피정, 심화피정, 집중피정이 진행됩니다.

기도모임 또한 서울대교구의 많은 본당들, 씨튼 영성센터, 개신교, 성공회 및 대학교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향심기도 전담이신 김귀웅 토마스 신부님께서 씨튼 영성센터 월 침묵 피정 때 두 차례의 특강과 미사집전을 해주셨습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 씨튼영성센터에서 월 침묵피정으로 향심기도와 강의,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녀님들께서는 2018년 12월 월 피정에 참석한 향심기도 회원들에게 사랑의 선물도 나눠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인천지부 ■

만수6동 기도모임은 16년정도 되었고, 꾸준한 기도회원은 5-6명으로 인천이라는 넓은 발에 작은 일에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각자가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의: 010-4780-7867)

■ 대전지부 ■

2018년 4월 천안 목천성당에서 소개피정 및 후속강의를 하였고 2018년에 천안 목천성당, 대전 복수동 성당에서 소기도모임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월모임은 대전 월평동성당 교육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0시30분 미사 후 진행합니다.

■ 청주지부 ■

2018년 9박 10일 향심기도 집중피정에 2명, 4박 5일 피정 1명 참석하였습니다.

구룡성당에 4명으로 구성된 소기도모임을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룹으로 월 침묵 피정에 참석해 볼 계획이 있고, 가능한 씨튼 영성의 집 소개 피정에 참석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광주 지부 ■

1) 매월 1회 쉼의 날 실시

향심기도, 렉시오 디비나, 하느님과의 친밀 통독, 신부님

강의와 미사

*12월 쉼의 날 총회 실시

광주지부, 소기도 모임 활동 내용 및 신년 연간계획 발표

2) 소개 강의와 후속 프로그램 강의 4회 실시//중흥동 화요

팀 소기도 모임 신설(15명)

3) 1일 피정,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1-3장) 이청준 신부님

4) 8월 기도회 봉사자 피정 12명 참여(마산 교육관)

5) 연중 1회 회원 친교의 날 1박 2일 마산교구 피정 및 거제도 여행(31명 참여)

■ 대구지부 ■

2018년 2월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만촌3동 성당에서 대구, 경북지역 월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청준 F.하비에르 신부님과 윤행도 가톨릭 신부님을 모시고 강의와 더불어 시작하여 매달 40여명에서 현재 1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두 번의 향심기도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기본교재로 함께 기도하고 공부 중이며 각 지역의 소식과 피정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 연 2회 마산교육관 피정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심기도 회원들을 독려하여 소개피정 참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2019년 6월17(월)~18일(화),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주제: 향심기도의 열매)에서 이청준 F.하비에르 신부님 지도로 대구, 경북지역의 향심기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마산 지부 ■

(진주)금산성당에서 수요일 저녁 7시에 소기도 모임(봉사자: 테광훈 스테파노 010-2831-4200)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 부산 지부 ■

당감 성당의 기도모임은 회원님들의 연세가 많고, 직장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범일 성당(저녁8시, 봉사자: 송석미 스텔라)신설, 2018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김기홍(베르나르도)신부님께서 향심기도를 지도해 주셔서 화명성당(봉사자: 황철선 이사벨라)에도 소기도모임이 신설되었습니다.

■ 울산 지역 ■

- 울산지역 기도회 봉사자는 박경희(마리아)입니다. 010-8029-6329
- 지난 6년간 하루 쉼 피정을 통하여 향심기도 저변 확대와 봉사자 양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부산지역 기도회원을 초대하여 성령강림 전야제를 지내고자 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원천이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며 영성생활에 영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의 생활을 활성화하여 향심기도를 한 단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 각 기도회에 하루쉼 피정을 공지하여 한 달에 한번 각 기도회가 만남을 가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제주도 지역 ■

2018년 7월 12일~14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로 향심기도 소개피정(이청준 신부님 지도)을 하였고 2019년 1월2~4일 서귀포 면형의 집에서 이청준 신부님의 지도로 청년들을 위한 향심기도 소개 피정을 가졌습니다.

공지사항

- ① 9박 10일 집중피정(9월 24일 오후4시 시작 ~ 10월 3일 점심식사 후 마침)과 2박 3일 소개 및 심화피정(10월 11일 오후3시 시작 ~ 13일 오후 3시 마침)을 하실 분들은 5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오니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전화: 02-421-1968)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② 한국관상지원단 새주소 : (우편번호 32906)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리 796, 지층1호

| 지부 간사 명단 및 연락처 |

- | | | | |
|-----------------|---------------|-------------------|---------------|
| • 사무국장 김병연 요셉 | 010-2948-3852 | • 서울지부 한명숙 카타리나 | 010-8553-2374 |
| • 인천지부 강경애 세실리아 | 010-4780-7867 | • 대전지부 박봉석 세례자 요한 | 010-3909-6649 |
| • 청주지부 연인래 아가다 | 010-9408-9670 | • 마산지부 황혜순 올리아나 | 010-9667-8944 |
| • 부산지부 류건희 아네스 | 010-9325-0006 | • 대구지부 최해자 세라피나 | 010-7795-0639 |
| • 광주지부 장미자 데레사 | 010-3632-0237 | | |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부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상지원단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기로 투신하는 개인과 향심기도 그룹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방법 : 02) 421-1968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dreamwiz.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는행 :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가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